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권

도시와 삶

지방과 중앙

안락회 삼인지

시설

지역 갈라놓는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6·2 지방선거가 지역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이 지역 내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쌀 소비 늘려야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2.4%) 감소했다. 쌀 소비량 감소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130.1kg)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세곤

역사 유적도 집이요, 정자요, 비석이다. 안에 스며있는 스토리를 알면 잔재미가 솟출하다. 의(義)의 길을 걷자. 그 길에서 울곧게 살아간 남도의 선비들을 만나고 바르게 사는 길을 배우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법선 스님



새해니 묵은해니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 그러나 가고 오고, 보내고 맞는 것이 새것이라도 내가 새롭지 않으면 다 묵은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새로워야 모두가 새것이 되는데 나는 안일하고 진부한 사고와 마음으로 주변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왜치고 면서, 미국이라는 외세를 맹신하는 모습 속에서 보수의 미덕은 사라지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적인 모습만 대중 속에 남아있다. 진보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멈춤 없는 발걸음과 새로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 진보를 생각하게 하는 가치이다. 진보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세상을 향해 일관되게, 한결같이 자신과 신념을 지켜가는 까닭에 아름답

이 시대의 보수와 진보를 위한 바람

해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치열한 삶을 배우기도 하고, 어설피게 한 마디 던지기도 한다. 올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인지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필자는 연대와 소통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로 충고를 하거나 경각심을 주려고도 하였다. 보수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을 그 기반으로 한다. 보수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자리까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까닭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통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사회 현실에 눈을 감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외시 한 채 무한경쟁만을 말한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보다는 반공만을 공허하게

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는 이러한 활발 발(活潑)한 본래 모습에 충실한지 묻고 싶다. 웬지 말만 번지르르 할 것 같은 구호의 남발과 이벤트성 캠페인에 의지하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모습과 더불어 홀로 뚝뚝하고 잘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속이 뻥 뚫린 이해관계를 포장해서 특 하면 분열하는 모습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느낌을 가져온다. 자칭 진보라는 세력은 지금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극복하려는 세력이 아닌 같은 진보세력 간에 더 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내 국민을 힘들게 한다. 진보도 보수도 투쟁의 대상이 아닌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에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진보세력에게 좀 더 스스로에게 담담해지고, 서로에게 여유로워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새해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축원하고 싶다. '분열하지 않는 진보가 희망이고, 부패하지 않는 보수가 우리의 미래'라고..... <무등산 문민정사 주지>

농업선진국가 가축혈액 활용사례 배워야

우리는 가축 혈액의 극히 약간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폐기 처리비용이 많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렇지만, 농업 선진국가들의 가축 혈액 활용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축산선진국들은 가축 혈액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화하고 있다. 아울러 물고기나 애완동물의 사

료용으로도 가공해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 가축의 혈액은 세계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 될 만큼 활성화돼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위생적인 가축 혈액 수거와 분리방법 개발하고,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혈액을 자원화할 경우 2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수처리 비용이나 도축장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기고

김기준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서부텍사스 중질유나 무바이유가 6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 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현재 국제유가는 돌 다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치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특히 비산유국인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리고 어른들은 TV 채널을 돌리느라고, 하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밤이 온 줄 알고 모두 잠자리에 들 것이다. 다섯째, 재래식 공중화장실 시설도 되돌아가게 된다. 비데를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자, 아니, 그냥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첫날은 장유유서 따라 그러저럭 처리하고 번거롭게 되어야 하는 것만이다. 이를찌는 아 파트 단에서 진동하는 뽕 밤새를 실컷 맡게 될 것이다. 목욕이나 샤워는 꿈

'국제유가 폭등'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석유과동을 넘었으니 또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상황이 예전과 같을 리가 없다.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개발도상국들은 자동차 소유 증가, 공장 증설, 고층 건물 건축, 냉난방기 가동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언제든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그 여파로 만약 전기를 제때 공급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첫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멈추게 된다. 당연히 실업대란이 뒤따를 것이다. 그 다음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살? 가족 붕괴? 소요사태? 국가 전복? 둘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매일 두 계단씩 건너뛰는 짬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위와 더위에 잘 적응한다.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어도 잘 날 살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넷째, 낮과 밤이 분명해진다. 현대인들은 밤을 잊은 지 오래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대학생들은 마트나 PC방에서 알바를 하느라고,

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시민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아우성이면 각 구마다 5개씩 푸세식 공중화장실을 파놓으면 된다. 그 다음 대책은 해결은 각자의 몫이다. 아침마다 줄을 서든, 한밤중에 해결하든, 굶 높은 구두로 발판에 떨어진 뽕을 밟든 말이다. 이때 방향제 파는 사람이든 줄 빌면 방향제 판매회사와 '전쟁' 하겠다고 담뱃 무개념 위인이 정치인 중에 꼭 나타날 것이다. 요즘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과간, 계과간의 힘겨투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동지를 뜯 태양광 업체들이 잔뜩 옹크리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광산업이 세종시 수정안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를 얻기 위해 우주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고 한다. 24시간 햇빛을 모으기 위해서다.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광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트래킹 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광속준 '미래기획위원회'는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수필가>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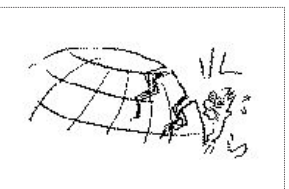
無等鼓

2008년 5월 8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중국 사천 대지진. 그로부터 채 2년이 안 돼 지구촌은 또다시 아이티 대지진 참사로 전율하고 있다. 아이티 정부는 지난 26일까지 지진으로 희생된 사람이 1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물 더미에 깔리고 실종자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지진의 특성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은 나라다. 지난 1995년 발생한 고베에서의 지진 희생자는 6천 400여 명이 고 육 등 무려 51만 채의 건물이 파손됐다.

년(고구려 유리왕 21년) 졸본 지역에서 발생했다. 서기 779년(신라 해공왕 15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이상)은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내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피해가 컸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는 관 내부에서 지층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한다. 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진원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내진 설계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는 너무 느긋하다. 아이티 대지진으로 경각심이 높아 지자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고 민간건물의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내진 보강을 받으면 내진 등급을 높일 수 있다. 내진 등급을 높이면 내진 보강을 받으면 내진 등급을 높일 수 있다. 내진 등급을 높이면 내진 보강을 받으면 내진 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지진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마음을 놓을 처지는 아니다. 지진 관련 문헌 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 지진 발생 횟수는 서기 원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총 1천 900여 회에 이른다. 가장 먼저 기록된 지진은 서기 2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